날마다 햇볕 쨍쨍…장마 맞아?

오호츠크해 고기압 밀려 장마전선 제주 남쪽으로 26일부터 장맛비 내릴듯

장마철인데 비가 내리는 날이 거의 없다.

광주·전남지역은 지난 18일부터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18일 밤 한 차례 비가 온 뒤 22일까지 구름만 잔뜩 낄 뿐 더 이상 비는 내리지 않고 있다.

'물폭탄' 양상을 보인 지난해 장마와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이처럼 비가 오지 않는데도 장마라고 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지만 장마 맞다. 본격적인 장맛비는 26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장마는 한랭 해양기단인 북쪽의 오호츠크해 고기압과 온난 해양기단인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나 형성된 불연속 장마전선에 의해 내리는 비를 말한다.

장마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은 이유는 장마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상하 기단 가운데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의 오호츠크해 고기압에 밀리면서 장마전선이 남하한 데 따른 것이다. 즉 이번 장마전선은 18일 잠시 북상하다가 바로 제주도 남해상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광주·전남지역의 본격적인 장맛비는 언제 올까?

22일 광주지방기상청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해 25일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고, 26일 광주·전남지역까지 확대돼 27일은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전남지역은 26일부터 3일 동안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오겠으며, 이번 비는 전국적으로 다소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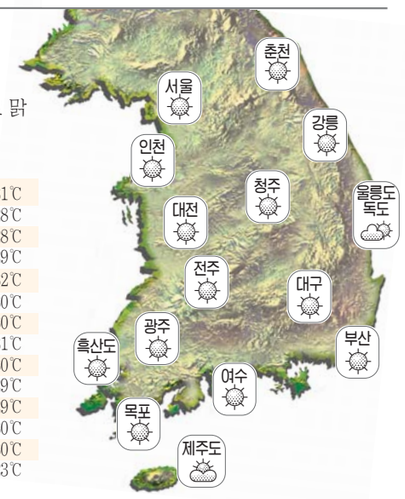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19분 해짐 19시 50분 달뜸 17시 00분 달짐 02시 16분

그늘 아래 쉬어가기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 주	구름조금	20/31℃
목 포	구름조금	18/28℃
여 수	구름조금	20/28℃
완 도	구름조금	18/29℃
구 례	구름조금	19/32℃
해 남	구름조금	18/30℃
장 흥	구름조금	18/30℃
고 흥	구름조금	18/31℃
순 천	구름조금	20/30℃
영 광	구름조금	17/29℃
진 도	구름조금	18/29℃
전 주	구름조금	18/30℃
남 원	구름조금	15/30℃
흑산도	구름조금	17/23℃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0.5m
먼바다	서~북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먼바다	북서~북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매우높음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0.5m
먼바다	북서~북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0.5m
먼바다	북서~북	0.5~1.0m

	밀물	썰물
목포	11:22 --:--	04:54 16:54
여수	06:23 19:27	00:38 12:2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날 씨						
최저/최고	18/31	20/30	22/26	22/28	22/28	21/30

보훈가족 위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22일 광주시 광산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고령 보훈가족 300여명을 초청해 위로 잔치를 벌였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수도권 업체 잠식·난립 … 위기의 광주 여행업계

공동상품 개발 활로 찾는다

중국 장시성 관광지 전세기 띄우기로

수도권 여행업체의 시장 잠식과 지역 업계의 난립으로 생존의 기로에 선 광주 여행업계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상품 개발과 전세기 취항을 추진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22일 광주시 관광협회(회장 김홍주)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께 지역 여행사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수익사업 위원회'(위원장 정길영)를 꾸린 뒤,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장시성(江西省) 산칭산(三淸山)·롱후산(龍虎山)·루산(廬山) 등 일대를 다녀왔다.

광주지역 여행사 대표들이 자체 사업이 아닌 공동 관광상품 개발에 머리를 맞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일정 내내 직접 산을 오르내리며 등산 코스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등 관광 상품성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6월 말 관광 코스와 프로그램이 확정될 경우, 다음달 초 중국 현지 항공사와 협의해 전세기를 띄울 계획이다.

지역 관광업계가 자구책 마련에 나선 이유는 수도권의 대형 여행사가 지역 여행업계를 30% 이상 잠식하고 있는데다, 직접 관광상품까지 판매하고 나서면서 지역 업체들의 적자 폭이 커짐에 따른 것이다. 150여개에 달하는 여행사 난립에 따른 '제 살 깎아먹기' 식의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점도 자구 노력에 나선 이유 중 하나다.

정길영 위원장은 "우리 지역 여행업계 시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중앙 업체의 잠식률이 월등히 높다"며 "이런 현실을 모두 공감하면서도 직접적으로 나서진 않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관광상품 개발은 물론 질서를 왜곡하는 초저가 상품 판매 자제 및 여행상품 제값받기 등 지역 여행사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올부터 특목고 입시 필기시험 못본다

학생부·면접 등으로 선발

하반기 실시되는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는 필기시험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장 추천서, 면접 등으로만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일반계고·전문계고·특목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복잡하게 분류돼 있는 고교 유형도 단순해진다. 또 자율형 공·사립고, 자율학교는 계절학기제를 도입하는 등 자유롭게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고 등 특목고 입시에서는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 평가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전면 도입돼 2011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이는 고교 입시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학교는 필기시험 대신 학교생활기록부·학교장 추천서·면접·실기시험(예술·체육고)으로만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전학·편입학 전형의 사교육 부담도 없애기 위해 특성화중,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학교장이 전학·편입학 전형 방법을 정하던 방식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 바꿔 필기고사를 치르지 못하게 했다.

선발 시기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교과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지역은 시기를 달리해서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5·18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 3주기 추모식

사단법인 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는 22일 "오는 26일 오전 11시 국립 5·18민주묘지 역사의 문 앞에서 고(故) 윤한봉 선생 3주기 추모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추모식에는 각계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오후 3시에는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추모문집 출판기념회도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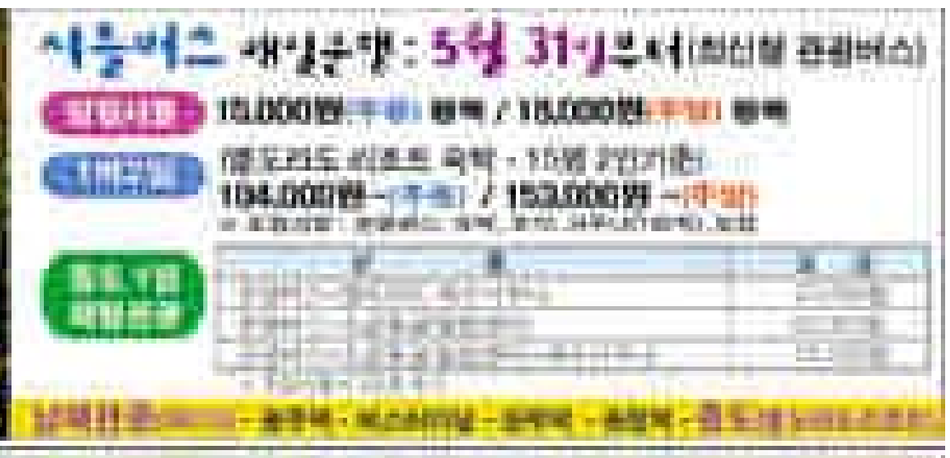
윤한봉씨는 1981년 미국으로 밀항한 뒤 민족학교 등을 결성했으며, 5·18 수배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수배가 해제되자 13년 만에 귀국했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지역교육청 9월부터 '교육지원청'으로

9월1일부터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간판을 바꿔 단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단위학교와 교육수요자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도록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업무범위를 재편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교육청은 역할 변화에 맞춰 명칭을 변경했다. 예를 들어 광주시동부교육청은 광주시동부교육지원청으로 바뀐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돼 시·도 교육청 본청에 자체 감사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앞으로 외부에서 감사관을 공모할 수 있게 된다. /박진표기자 lucky@